



황혼에

10여년 전이었다. 늦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H대 연구조교로 있을 때였다. 9층 타워 연구실에는 서쪽으로 난 큰창이 있어서 매일 황혼 한 저녁노을을 보며 좋아하였고 창에 기대어 꿈꾸며 환상을 즐겼다. 건넌 영등포에 불빛이 하나 둘 커질 때면 하얗게 누워있던 말없는 강물이 백박을 찾으면서 서서히 붉은 도도를 걸치고 몸을 일으켰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보았던 것이다. 먼저나 온 별들끼리 황혼의 사건을 두고 수근대기 시작할 무렵이 돼서야 나는 창에서 멀어져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명상에 잠겨곤 했다. 왜 낮은 가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그 찬란한 빛은 어디로 갔는가. 왜 시간과 생명의 앞에 관한 한, 지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주어질뿐, 스스로 취할 자유가 없단 말인가라고. 그후 나는 온화의 이치를 깨우쳤다.

낮과 밤의 만남 속에 윤희 알게 돼

낮과 밤이 만나 역겹기 안연을 맺는 의식을 주재하기 위해서다. 분홍빛 맑은 천사의 너울을 드리우고 사뿐히 내려오는 낮의 발음에선, 인제나 구슬소리가 났고 꽃구름 휘감은 푸른 손으로 수줍게 그를 맞는 밤의 모습은 거뿔했다. 강한 밤의 머리를 땀기로 치장하고 그를 낮에게 건네주며 또 다른 낮을 일태게 도운 후 그 붉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온 하늘에서 격렬한 춤을 추곤 의식을 끝냈다. 불꽃이 다시 한번 천지를 밝힌 후 사뿐하게 식으면, 보라빛 잔조속으로 영면을 향해 돌아서는 낮의 슬픈 모습을 가슴아르게

황혼은 나에게 저 강물, 저 미루나무 한 그루가 바로 나의 조상의 물이었음을 가르쳤고, 분진과 구름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물이 내 것이 아니어서 돌려 주고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황대로 쓰지도 못하는 시간, 수필, 아, 이생 또한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후 나의 생활은 달라졌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루의 시간속에 어둡없이 찾아오는 황혼.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어느때에는 스러지는 풀잎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 상념의 영토를 가득 채운 것이다. (이희자 동양회화)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④

주부신행담

어들이 길을 반쯤 차치하고 황혼이 머리를 숙이며 시계바늘을 재촉하고 있던 어느 어느를 저녁, 오랜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불속 찾아 들었다. 한동안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며 우연한가 곱씹히 생각하는데 보이던 모습이 일순간 무너지며 처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나 나 입 파선 알아라" 고개를 뒤로 틀리고는 더이상 아무 말도 없는 동생의 뒷모습에서 나는 이 엄청난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한데 모으면 세상에 못할 것도 없다"며 처방아닌 처방을 내려 주었다. "나는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자부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지금의 내 처지로서는 부처님 인력에 기대보는 수밖에..." 이렇게 말을 흐리는 동생을 두고 내려오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합당함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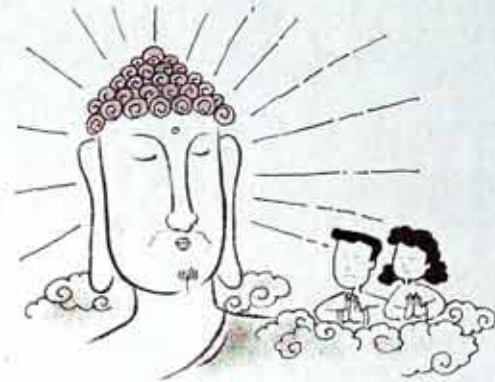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직업을 이용해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몇년전부터였고 단지 지금 그 생각이 반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을 뿐. "생활이 어려운 불자들에게 무료 드레소도 빌려주고 신부화장도 해주고 어때요?" "그렇다면 굳이 불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남 돕는데 종교를 가릴 필요는 없지 않겠소?" 어느덧 남편

은 이미 종교까지도 초월한 신심 깊은 불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다. 이런 것이 참행복이라는 가슴 저리는 사람으로 다가왔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인생에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느낄수 있었던 한달, 그 한 달이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즈음 불행한 동생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어떤 하늘 한구석에 동생을 데려다 주었음에 급한 일

이 아니고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동생이었다. 물론 찾아 오지도 말라는 단호한 부탁과 함께. 건담에 보였다. 이상하리만큼 힘이 넘쳐 보였으며 전에 볼 수 없었던 맑은 눈동자는 나를 살려 이겨까지 했다. "누나! 나 다 나 있어. 스님이 시키는대로 인정하고 발원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동생은 이미 내 품에 들어와 있었다. 기억이었다. 병원에서도 웃고있던 병이 한달새 나아졌더니 말할 수 없었다. 현대의학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진단결과 역시 거의 치료 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부처님의 지비였다.

"누나, 나 다 나았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인정하고 발원하고..." 동생은 내 품에 안겼다

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이제 우리 미용실도 뽀만를 지리가 잡혔고 봉사활동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직업을 이용해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텐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내 심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땀방아고 나를 노려보듯 쳐다본 남편은 "당신 지금 동생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다. 나는 어쩌면 바로 내 앞에 다쳐온 동생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해야한다고 생각



언젠가 들었던 '믿고 있는 것만큼 부처님은 다 들어 주신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이런거였구나. 믿음이란 이런거구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남편 부처님 법 따르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하나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심으로 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부처님 법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병원의 수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열세없이 눈물을 닦아 내느라 바쁜 손놀림이었지만 참 괴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희자 (서울 종로구 홍지동)

The friend who is constant in happiness and adversity is to be reckoned as good-hearted on four grounds. He tells you his secrets. He does not betray your secrets. In your troubles, he does not forsake you. For your sake he will even lay down his life.

즐거울 때나 고생할 때나 한결 같은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

learn what you had not learnt before. He shows you the way to heaven.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③ 좋은 종교자인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친절하다. 그는 그대가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그대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한다. 그로부터 그대는 이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다. 그는 그대에게 천상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The friend who is sympathetic is to be reckoned as good hearted on four grounds. He does not rejoice over your misfortunes. He rejoices with you in your prosperity. He restrains those who speak ill of you. He commends those who speak

well of you. 자비심 있는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음좋다고 생각된다. 그는 그대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의 성공을 기뻐한다. 그는 그대의 말담을 하는 사람을 막는다. 그는 그대를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forsake' -을 저버리다. 버리다. 'lay down one's life' - 목숨을 버리다. (빅디엠 기사)

Advertisement for WODTEC wood product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nowy forest and a smaller image of a modern living room. Text includes '따뜻함이 있는 곳, 우드텍이 있는 곳', '온돌 전용 나무 마루재 우드텍', and a list of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